

## [2026학년도 합격수기]

###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기 지역 일반사회 초수 합격을 하게 된 교사입니다.

저는 졸업과 동시에 임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역사·일반사회 복수전공이지만 본전공은 역사였기 때문에, 일반사회는 사실상 노베이스 상태에서 초수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베이스 초수였던 만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상황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공부 방향을 잡기 어려워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격수기를 남깁니다. 특히 초수 선생님들께서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도록 제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임용시험의 특성상 '허수'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수험생이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아마 학원을 다니며 이를 체감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무엇보다도 열정과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먼저 합격한 친구를 제 나름의 경쟁자로 삼았습니다. 그 친구의 합격 이후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자극했고, 그 과정이 공부에 대한 열의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열정이 식지 않도록 스스로를 관리하며 꾸준히 나아간다면, 성적은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충분한 열정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저의 준비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일반사회 최근 동향

최근 고교학점제 시행의 영향으로 선발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원 추세가 장기간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따라서 향후 1~2년은 비교적 기회가 열려 있는 시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발 인원 증가의 영향으로 지원자 수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학원 직장을 수강했는데, 합격 이후 방문해 보니 수강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약 1.5배 정도 증가한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지원 경쟁 또한 이전보다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사회의 1차 시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사회가 비교적 초수 합격이 가능한 과목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기본 개념과 암기 영역을 탄탄히 준비한다면 응시 횟수와 무관하게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 지역의 경우 2차 시험에서의 변별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흐름을 느꼈습니다. 특히 수업 설계 역량이 새롭게 강조되고, 수업 실연에서의 평가 비중이 커지면서 2차에서 실질적인 합격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1차 준비와 병행하여 2차 역량을 미리 준비하는 전략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2) 일반사회 난이도 및 특성

일반사회 과목의 가장 큰 특징은 암기의 중요성과 높은 기출 반영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반에서의 체계적인 암기, 그리고 기출 풀이반에서의 제시문 분석과 답안 구조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부분을 중심에 두고 공부한다면 안정적으로 높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암기의 비중이 높은 과목이지만,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임용 과목 중에서는 비교적 평이한 편에 속한다고 느꼈습니다. 실제 합격선 비교를 통해서도 이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회는 범위는 넓지만 깊이는 상대적으로 얇은 편입니다. 그래서 학원 강의 역시 개론서 중심으로 진행되며, 내용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성은 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학원 교재나 개론서 수준의 내용은 대부분의 수험생이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본서와 학원 교재의 내용을 '통으로' 암기할 정도의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한 부담 요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반복 암기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알고 있다고 느끼는 내용도 시간이 지나면 쉽게 흐릿해 집니다. 뒤돌아서면 잊히고, 일주일만 지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이 이 시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전 범위를 지속적으로 회독하며 기억을 유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험장에서 "이거 봤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대개 다른 수험생들이 맞히는 문항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꾸준히 암기하고 반복해 온 내용이라면, 처음에는 가물가물하더라도 시험지를 붙잡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합격선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험 생활을 하며 느낀 점 중 하나는, 모든 수험생이 같은 강도로 공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직장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고, 학습 리듬이 잡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여러 사정으로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도 존재합니다. 결국 실제 경쟁자는 그중에서도 끝까지 몰입하여 꾸준히 공부하는 소수의 수험생들입니다.

제가 직장을 들으며 체감하기로는, 매일 일찍 와서 공부하고, 강의 이후에도 남아 자습을 이어가는 수험생들이 결국 마지막까지 안정적으로 준비해 나갔습니다.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 스스로의 루틴을 지키며 꾸준히 쌓아가는 태도

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을 기준 삼아 스스로를 단련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2. 1차 '전공' 공부 요령

### 1) 1차 전공 - '교과 내용학 (전공 과목)' 조언

전공 과목은 공부량이 매우 방대하고 배점 또한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의 학습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공부할 것인지, 스터디를 병행할 것인지, 직강을 들을 것인지, 인강을 선택할 것인지를 12월에 충분히 고민한 뒤 1월부터는 곧바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저는 스스로를 매우 강한 장의존형 학습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직강과 스터디를 병행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제게는 큰 도움이 되었고, 특히 초수 선생님들이나 장의존형 학습자분들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목별 조언에 앞서, 모든 과목에서 기출 분석은 필수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풀고 정답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을 분석하며 “이 내용을 다시 출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변형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출된 주제는 학원 교재에 표시해 두거나 별도의 노트에 정리해 두면 반복 학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출은 단순한 복습 자료가 아니라, 출제자의 사고방식을 읽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 1. 사회문화

사회문화는 사회교과교육론과 함께 출제 비중이 높은 과목입니다. 따라서 주요 개념과 이론을 비교·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비판적 사회 읽기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만큼, 제시문 독해와 개념 적용 능력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학원 교재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유가 있다면 고등학교 교과서를 함께 참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시험에서 교과서에서 접했던 표현이나 사례가 떠오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를 한 번 정독하며 학원 교재에 없는 부분을 보완해 두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2. 정치

정치 역시 암기 비중이 높은 과목이지만, 사회문화나 사회교과교육론에 비해 이해 중심 학습의 효과가 더욱 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단순 비교표로 암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자유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며 등장한 사상이 공동체주의이며, 이를 주장한 학자들은 누구인가”와 같이 흐름 속에서 이해해 두면 이후 문제 풀이에서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면 새로운 선지가 등장하더라도 추론이 가능해지고, 암기 부담도 줄어듭니다. 저 역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정치 과목이 가장 안정적인 과목이 되었습니다.

#### 3. 경제

경제는 기본적으로 이해 과목에 가깝습니다. 다만 저는 이해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와 암기를 병행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거시경제의 경우 주요 전달 경로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반복 암기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출제 경향을 보면 미시경제는 비교적 다양한 난이도로 출제되는 반면, 거시경제와 국제경제는 상대적으로 기본 개념 중심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거시·국제 영역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기본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미시경제는 변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정교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경제 노베이스 초수였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풀었고, 경제 문제 풀이 스터디에도 참여했습니다. 하루에 정해진 문제 수 이상을 스스로 추가로 풀며 양을 확보했고, 다른 수험생들의 풀이 과정을 비교하며 사고 방식을 익혔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경제 강의 선택은 개인차가 큰 영역이므로, 본인의 이해 방식에 맞는 강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합격 후기나 추천을 참고해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공은 “많이 아는 사람”보다 “꾸준히 반복한 사람”이 유리한 시험이라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기출을 중심에 두고, 과목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세운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 3) 1차 전공 - '교과 내용학 (전공 과목)' 월별 공부법

저는 초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터디에 의존하기보다 전공 개념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준비 때와 마찬가지로 '당일 학습, 당일 복습'을 제1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직장이 있는 날에는 반드시 그날 배운 내용을 당일에 복습했습니다.

일부에서는 1~4월은 속도를 조절해도 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론 강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해 두느냐가 이후 모든 공부의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월 동안은 약속을 거의 잡지 않았고, 직장이 끝나면 바로 스터디 카페로 이동해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주말에는 한 주 동안 학습한 내용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이 시기의 밀도가 이후 학습 효율을 크게 좌우한다고 느꼈습니다.

#### 5~6월 : 기출 중심 학습 전환

5~6월부터는 기출 강의를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수업 전날 학원에서 제공한 기출문제와 자료를 먼저 풀어보고, 강의는 복습 및 보완의 개념으로 들었습니다.

일반사회는 기출 반영 비율이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기출 제시문에 등장한 개념을 따로 정리하고 교재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이 다시 나온다면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정리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법·정치·사회문화·사회교과교육론은 온라인 카페에서 인출지를 구해, 이를 토대로 1:1 질의응답 형식의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스터디는 2개월 단위로 전 범위 인출을 목표로 했으며,

1. 주 4회 진행
2. 그날 정한 범위는 반드시 인출
3. 인출 범위는 사전에 학습 완료

라는 원칙을 세워 운영했습니다. 규칙을 명확히 정해 두니 흐트러짐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는 1:1 질의응답 방식이 다소 비효율적이라 판단해, 하루 3문제씩 풀이 인증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주 5일, 총 15문제를 꾸준히 풀며 경제 문제에 대한 감각을 유지했습니다. 반복 노출을 통해 경제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 규칙은 3문제였지만 저는 경제가 부족하다고 느껴 10문제씩 풀었습니다. 기출문제는 학원 교재를 활용하였습니다.

#### 7~8월 : 심화·보충 + 슬럼프 극복

7~8월에는 이론 보충 및 심화 강의를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개념 재정리와 빈틈 보완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동시에 스터디 비중을 더욱 높여 반복 학습에 집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날씨는 덥고, 공부는 지치고, 시험은 아직 멀게 느껴졌으며, 한편으로는 “이제 다 아는 것 같다”는 착각도 들었습니다.

이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스터디였습니다. 정해진 일정 덕분에 강제로라도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고, 반복 인출을 통해 학습 밀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슬럼프는 특별한 방법으로 극복하기보다, 하던 루틴을 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 9~11월 : 모의고사 활용과 마무리

9월부터는 모의고사가 시작됩니다. 저는 스터디를 학습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내가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모의고사의 정답 자체보다 제시문 내용을 꼼꼼히 읽는 데 집중했고, 교재에 없는 표현이나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보완 자료로 추가했습니다. 모의고사 역시 또 하나의 ‘기출 후보’라고 생각하며 접근했습니다.

시험 2주 전부터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리한 인출지를 반복하며 전 범위를 계속 돌렸습니다. 이 시기에는 확장을 멈추고, 정리된 내용을 단단히 굳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1차 시험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4) 1차 전공 - ‘사회교과교육론’ 공부법

사회교과교육론은 말 그대로 암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효자 과목’이 되기도 합니다. 임용 출제 범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서도, 기본 교재(차모책) 한 권과 기출을 중심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제 예측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교과교육론은 반드시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과목입니다. 1~4월까지의 암기량이 많아 부담이 크지만, 한 번 체계가 잡히면 점수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과목으로 전환됩니다. 상반기에 확실히 기반을 다져두시길 권합니다.

1~2월 : 구조 잡기 + 압축 정리

저는 1~2월 동안 인터넷 강의와 기출을 병행했습니다. 수업과 기출 정리가 동시에 이루어져 복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은 뒤에는 항상 당일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사회교과교육론은 하루에 배우는 내용 분량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강의를 들은 날 중요 내용을 한 장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압축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단원명, 핵심 개념, 특징, 장단점, 비판 등을 한 페이지 안에 구조화해 정리했고, 이렇게 만든 노트가 20페이지 정도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이 노트를 중심으로 반복 암기했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펼쳐보며 인출하는 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사회교과교육론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교육과정의 역사와 흐름입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더욱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교육과정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사회교과교육론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핵심 축을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6월 : 기출 기반 재정리

기출 강의 시기에 사회교과교육론 기출을 다시 한 번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푸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내용을 변형한다면 어떻게 출제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제가 직접 빈칸을 만들어 보거나, 서술형 문항을 재구성해 보면서 출제자의 시각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암기 밀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스터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방식과 동일하게 인출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전 범위를 여러 차례 회독할 수 있었고, 사회교과교육론은 거의 완전 인출이 가능할 정도로 숙달되었습니다.

후반부 : 세밀화 vs. 선택적 암기

이후에는 전 과정을 반복하며 세부 개념을 정교하게 다졌습니다. 예상 외의 지점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범위 인출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고 판단되면 세부적인 표현까지 다듬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시민성’, ‘세계시민성’과 같은 비교적 비중이 낮아 보이는 개념도 빈칸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모든 내용을 동일한 강도로 암기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출제 가능성이 낮은 영역까지 모두 외우려 하면 학습 부담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예를 들어 교과서 유형의 경우 교과서 유형(국정·검정·인정)의 기본 구분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출제 가능성을 고려한 선택적 암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회교과교육론은 범위를 압축해서 보면 효율적인 과목이지만, 책 한 권을 통째로 완벽 암기하려고 하면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따라서 핵심 범위를 확실히 장악하되, 세부 영역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 3. 1차 '교육학' 공부 요령

#### 1) 1차 교육학 전반적 조언

교육학은 과도한 시간을 투자할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의 수강 시간이 주당 8시간을 크게 넘어간다면, 효율적인 시간 배분인지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학은 전공에 비해 배점이 낮은 편이며, 답안의 편차 또한 극단적으로 벌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핵심 이론과 빈출 개념은 확실히 숙지하되, 지나치게 어려운 영역까지 완벽히 가져가려는 과도한 투자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학은 '완벽'보다는 '안정'을 목표로 접근하는 과목에 가깝습니다.

최근 교육학 출제 경향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암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시문을 얼마나 정확히 분석하고 요구에 맞게 변형하여 서술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최근 시험에서도 제시문의 특정 표현을 정확히 해석하지 않고 단순히 이론의 특징만 나열했다면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즉, 암기한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학은 단순 암기형 과목이 아니라, 이론 + 적용 + 분석이 결합된 과목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2) 1차 교육학 월별 공부법

1~4월 동안 교육학 강의를 들은 뒤에는 반드시 당일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사람은 학습 직후에 복습할 때 가장 효율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날 배운 내용을 바로 한 번 더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다음 날 진행되는 미니 퀴즈를 대비해, 제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당일 복습은 ① 배운 내용 범위 확인 ② 요약 정리 및 암기 ③ 인출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요약 정리 방식은 각자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 스터디를 편성해 주었고, 해당 스터디원과 함께 교육학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기본 개념을 인출지 형태로 정리했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월요일, 화요일, 일요일에 스터디를 운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유형 중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교수방법, 배경 전이이론, 배경 철학에 대해 말해보세요."와 같이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본 개념을 더욱 탄탄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5~6월에는 학원에서 비교적 간결한 요약 교재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당일 복습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모의고사를 활용해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교육학 시험에서 제시문 분석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강의에서도 이러한 출제 경향을 반영해 제시문 분석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모의고사 역시 제시문을 정확히 분석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시문을 깊이 있게 읽고 해석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의고사를 본 이후에는 관련 개념을 다시 복습하고, 제시문을 제대로 분석했는지 복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제시문을 먼저 분석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모의고사와 간단한 개념 정리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학원 일정에 맞춰 기존에 정리해 둔 내용을 반복 인출하며 암기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교육학에 과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위해 인출 위주로 간결하게 복습했고, 모의고사 점수대를 확인하며 학습 방향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 4. 1차 시험 스테디

### 1) 1차 전공 스테디 조언 & 월별 스테디 방식

위에서 언급했지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1~4월까지 혼자 당일 복습에 집중했고, 5월부터 스테디를 시작했습니다. 법, 정치, 사회문화, 사회교과교육론 스테디는 온라인 카페에서 허역 팀 교재 기반 인출지를 구해, 이를 바탕으로 학원 선생님과 1:1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스테디 목표는 2개월 단위로 전 범위를 한 바퀴 인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공 인출지는 카페 게시자의 요청으로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스테디 운영 규칙은 세 가지였습니다.

1. 주 4회 스테디 진행
2. 그날 정한 범위는 반드시 인출
3. 인출 범위는 사전에 공부 완료

이 세 가지 규칙을 정하고 반드시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시작 전에 2개월 단위의 진도 계획을 미리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학원에 다니는 것처럼 일정이 고정되었고, 하기 싫은 날에도 자연스럽게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스테디를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관계가 편해지거나 긴장이 풀리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디는 반드시 규칙을 정하고, 지키지 못할 경우 벌금 등 일정한 강제성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직강의 장점 중 하나는 다른 수험생들의 학습 태도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직강에서 가장 성실하게 공부하는 선생님을 찾아 먼저 스테디를 제안했고, 그 덕분에 11월까지 스테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는 1:1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하루 3문제 풀이 인증 스테디를 진행했습니다. 주 5일, 총 15문제를 꾸준히 풀며 경제 문제에 익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반복 노출을 통해 경제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기본은 하루 3문제였지만, 저는 경제가 특히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루 10문제를 푸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허역 기출 교재를 활용해, 한 회독을 마치면 지우고 다시 풀고, 또 다시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 점점 문제 풀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사회는 제가 계속 강조하듯 암기의 과목입니다. 인출지를 기반으로 한 반복 인출 스테디를 진행한다면, 노베이스 초수라도 결국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스테디 방식이나 진도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결국 합격한다는 점입니다. 스테디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다면 이미 상당 부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테디를 통해 4과목을 총 4회독했고, 여기에 학원 진도와 당일 복습까지 포함하면 약 8회 이상 반복했습니다. 한 내용을 8번 정도 반복하면, 문제를 보는 순간 관련 개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 2) 1차 교육학 스테디 조언 & 월별 스테디 방식

교육학은 대부분의 학원에서 스테디를 편성해 줍니다. 만약 학원에서 편성해 준 스테디가 본인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자신과 맞는 스테디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디를 진행하다가 서로 맞지 않아 흐지부지되거나 갈등이 생기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미루지 말고 빠르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행히 처음 편성된 선생님과 4월까지 스테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학은 상반기에 집중해서 기반을 다시

고, 하반기에는 간단한 인출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학은 전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지 않고, 학원에서도 2개월 간격으로 반복 복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암기가 되었다면 가볍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 선생님과 4월까지만 스터디를 진행했고, 이후에는 혼자 학원 교재를 보며 인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스터디를 언제까지 진행할지는 각자의 선택이므로, 본인의 성향과 스터디원의 성향·실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학원에서 편성해 준 선생님과 함께 월요일, 화요일, 일요일에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교육학 수업을 들으며 기본 개념을 인출지로 정리했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 교육과정 유형 중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교수방법, 배경이 되는 전이이론과 철학에 대해 말해보세요.”와 같이 질문하면, 상대가 이에 대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기본 개념을 단단히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혼자 공부를 이어갔기 때문에 스터디에 대해 더 많은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상반기에 교육학의 틀이 잘 잡혀 있을수록 하반기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초반에 밀리지 않고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결국 전체 수험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줍니다.

## 5. 수험생 마음가짐 및 수험 생활 조언

일반사회에는 현재 부동의 1타 허역 팀이 있습니다. 허역 팀이 다루지 않은 부분은 대부분의 수험생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모르는 것은 남들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래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수시로 “내가 모르는 것이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을 느꼈고, 실제 시험에서도 모르는 문제를 틀렸습니다. 그러나 1차 시험이 끝난 뒤 다른 수험생들의 채점 결과를 보니, 그 문제는 대부분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남들이 맞히는 문제를 정확히 맞히고, 남들이 틀리는 문제를 함께 틀려도 1차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꾸준한 암기입니다.

임용 시험은 남들과의 경쟁이지만, 임용 공부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을 믿고 끝까지 간다면 결과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발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공부 시간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열품타에서 함께 공부하던 사람 5명 중 항상 가장 적은 공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얼마나 집중해서 활용하느냐입니다. 13시간 공부해 많은 범위를 보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본 내용은 금방 잊히기 쉽습니다. 자신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시간을 기반으로 점차 늘려가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열품타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보며 자극을 받는 도구일 뿐, 시간을 경쟁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고, 예민해지거나 화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시기에 제 감정이 이렇게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공부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충분히 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시간에 대한 압박은 자연스럽게 커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나치게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은 항상 1순위입니다. 수험생 시기에 아픈 것만큼 힘든 일도 없습니다. 수면 시간은 최소 6시간은 확보하시고, 계절에 맞게 따뜻하거나 시원하게 옷을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자주 씻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 주세요. 공부하면서 손을 입에 가져다 대는 습관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공부 계획과 다짐도, 아프면 지킬 수 없습니다.

## 6. 마무리하며

임용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너무나도 힘든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힘든 길이지만 합격하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교단에 선다면 어떤 기분일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1년 그 상상만으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상상,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 챙기시고, 제가 응원합니다. 여러분 파이팅!